

공산사령은 중국사람을 죄악의 심연속으로 끌어넣었다 (련재—2)

중공은 중국사람들이 자기 민족의 정체(繁體)문자를 사용하는 권리를 박탈하였다. 고쳐버린 후의 간자(簡體)는 중국 아동들이 자기 선조들이 물려준 찬란한 문화를 계속 전승받을 수 없게 하였고 중국사람들의 문화 뿌리를 잘라버렸다. 그를 대신한 것은 현대 교과서에 폭력과 거짓말로 가득찬 당문화로서 사람들에게 증오를 가르쳐주어 악한 사람이 되게 하고 있다.

중공은 중국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았다. 심지어 억울하다고 외칠 권리마저 빼앗았다. 얼마나 큰 억울함을 당했어도 상소할 데가 없는 것이다. 청원의 길은 가로막히고, 신방반(信访办)에는 경찰이 앉아있어 "사람 잡는 사무실"이 되었으며 억울하다고 외치지 못하며, 외치는 자는 심지어 멸구(灭口, 번역주 - 비밀 유지를 위해 그것을 아는 사람을 가두거나 죽이는 것) 당할 수도 있다. "중요한 날"에는 더구나 외치지 못하며 끊임없이, 억울함에 더욱 억울함을 만들어 내고 있다.

비록 중화대지가 백성들이 시름놓고 살만한 곳이 못되긴 하여도 도리어 곳곳에 노래와 춤의 태평성세를 볼 수 있다. 한 쪽에서는 집을 잃고 땅을 잃고 심지어 일체를 잃은 백성들이 고통에 허덕이고 있어도 다른 한 쪽에선 도리어 "태평성

세"를 찬양하는 우렁찬 노래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아름답고 우수한 민간노래는 중공을 찬미하는 가곡으로 뜯어 고쳐져 중국사람들이 일제히 높이 부를 것을 요구하며, 중공이 인민에게 가져다준 "행복한 생활"에 감사 드리게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중공의 언론과 부동한 것이 있지만 하면 일률로 "반화세력"으로 매도한다.

중공은 중화대지에서 나쁜 짓만 일삼고 자기밖에 없다고 뽐내고 있지만 끝내는 이제 보을 받을 때가 되었다. 중공은 천, 지, 사람, 신에 대하여 하늘에 사무친 죄행을 범했다. 지금 이미 천멸중공(天滅中共)의 외침소리가 들려오고 있으며 보을받지 않는 것이 아니며, 악에는 악의 보답이 있는 법이다. 중공은 대부분의 중국사람들을 남녀로소 가리지 않고 공산당 사악한 령체의 대오에 끌어넣어 그것을 확대시켰다. 천멸중공은 눈앞에 다가왔다. 중국사람들이여 깨어나라. 공산사령의 통제에서 빨리 벗어나 중화인의 자유의 몸으로 탈바꿈하라. 어서 빨리 탈당하라! 어서 빨리 탈단하라! 어서 빨리 탈대하라! 이는 신이 중국사람에게 알려주는 한 갈래의 살 길이다! 절대로 신의 안내를 저버리지 말라! 절대로 계속하여 공산사령과 휩쓸리지 말라! 절대로 중공의 순장품이 되지 말라! (끝)

하늘의 뜻을 전하는 표어



2007 년 12 월초 눈 내린후, 중국 하북성 모 지방 길가에 "천멸중공, 퇴당보명"이라고 쓴 표어가 각 별히 눈에 띄었다. (윗 사진)

홍콩퇴당지점에서



중국유람객들이 텔레비전에서 중공이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료해하고 (윗 사진)선전란에서 퇴당소식을 열독하고 있다. (아래 사진)

시드니에서 3,000 만명이 중공에서 퇴출함을 성원



2007 년 12 월 15 일 오스트랄리아 시드니 여러 단체 근 천명이 별몽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3천만 용사들이 공산당, 공청단, 소선대에서 퇴출함을 성원했다. (윗 사진)

법 률 공 전 파 의 회 고



[사진 1]

1996 년 5 월 24 일, 무한시 4 중 에서 집체련공하 는 장면



[사진 2]

1998 년 10 월 1 일, 근 만명 제남시파룬궁학 원들이 산둥성체육장에서 집체련공하는 장면

돈으로 살수 없는 복



마저 없었다.

1999 년 2 월, 대법제자가 우리촌에 와서 파룬따파를 소개했다. 그때 병이 중해 침대에 누워 있는 나는 시어머니보고 “전법륜” 책을 읽어달라고 했다. 이 책은 통속적이고 알기 쉬웠으며 “쩐싼런”의 법리는 나에게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쳤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전법륜” 책을 한번 읽었을 때 나는 걸으수 있었고 집체련공도 할수 있었다.

두달후 나의 신체는 완전히 회복되었는데 지금까지 8 년동안 줄곧 재발하지 않았다. 파룬따파는 세상사람들에게 좋은 인품과 건강을 주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돈으로 살수 없는 복이다.



천안문분신자살안건은 중공이 꾸며낸 연극이다

2000 년 1 월 23 일, 중앙텔레비전 “초점방담”에서 방송한 천안문분신자살안건 비디오에서 왕진동의 두 다리사이에 휘발유를 넣은 비닐콜라병은 고온의 불길속에서도 타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 (윗 사진)



목수술한지 사흘만에 류사영은 노래를 부르는 (아래 사진) 등의 문점이 그대로 방영되었다.

국제교육발전조직 (IED)에서는 2000 년 1 월 8 일, 유엔회의에서 성명을 발표하여 <중공정부는 천안문분신자살사건으로 파룬궁을 모함하려고 하였지만 우리들이 그 록상을 분석한 결과 천안문분신자살사건은 중공정부가 꾸며낸 연극이다.>라고 지적했다.



연변박해소식

■ 왕청현 파룬궁학원 임정자(任贞子)는 지난 21 일에 악경들에게 랍치되었다. 상세한 정황을 아시는 분들은 제보하기 바란다.

■ 왕청현 대법제자 오영자(吴英子)는 지난 12 월 25 일 오후 4 시경에 진상자료를 배포하다가 왕청진파출소 악경들에게 랍치되었다

■ 연길시 파룬궁학원 리수남(李秀男)은 지금 9 대(九台)로교소에서 박해를 받고 있다.



왕청현공안국, 국보대대악인방

차종철	국장	13844768111
왕연성	부국장	13943385896
김성범	부국장	13904467385
장광문	부국장	13904462199
관청우	대대장	13944770818
최웅식	교도원	13904462303

